

성인 여성의 연령대별 기성복 치수 선택 실태 조사

- 구호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Regarding the Size Selection for Ready-to-Wear by the Age Range of Adult Women

- By the Old Size System -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석혜정
교수 김인숙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

Lecturer : Seok, Hye Jung

Professor : Kim, In Suk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regarding the size selection for jackets, skirts, and slacks among the ready-to-wears worn by adult women, and to examine the physical measurements of major parts for the women wearing each dress size. The data collection was made through the questionnaires obtained from 699 adult women of 20 to 59 years of age. The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the sizes of ready-to-wears worn and physical measurements of the respondents.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description statistics, Crosstabs, ANOV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izes of ready-to-wears worn by adult women along the age ranges.

Corresponding Author: Seok, Hye J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272 Fax: 82-2-961-0265 E-mail: pinky90@hanmail.net

2. The ratios of correspondence for the sizes of jackets and skirts and for the sizes of jackets and slacks were as high as 77.3% and 78.3%, respectively.
3. The differences were found in every physical measurement item of the jacket wearers by the size. The girth items showed an increase with the larger sizes of jackets, whereas the height was the largest for the wearers of Sizes 55 and 66, regardless of the jacket sizes. The differences in the physical measurements by the age range, among the jacket wearers of the same size, were found in the height and the waist girth. The height was lower and the waist girth was larger, with the older age. In addition, the differences in the wearers' physical measurements, by the jacket size of the same age range, were found in every item including the height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in every item excluding the height among those in their 30's or the above.

주제어(Key Words): 기성복(ready-to-wear), 신체 치수(body size), 치수(size)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 왔고, 의생활도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왔다. 현재는 의복 구입 시 기성복 구입율이 94.1%(최혜선, 이경미, 1995)에 이르러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이 기성복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성복은 근래에 들어 유행의 흐름이 빨라짐에 따라 디자인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다양한 체형을 커버해 맞춤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치수별 생산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로 인해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치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연구(인체계측방법의 효율화, 정밀화, 효율적 치수 간격 설정, 소비자의 맞춤새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들)가 진행 중이다.

기성복 치수 간격 및 소비자의 맞춤새 만족도에 관해서는 치수의 적합성과 부위별 불만족, 수선 부위에 관한 연구(김양원, 1999; 이진희, 2001; 정주희, 1994)가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착용하는 기성복의 치수와 기성복의 치수별 소비자 신체 치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연령별로 치수 선택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상하의 치수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은 여유분을 필요로 하며, 특히 연령과 함께 하체의 크기가 커져 상하의 치수 선택이

불일치 한다는 橋詰靜子, 長田美智子, 雲田直子, 長塚こずえ, 田中百子, 永井房子의 연구 결과(1999)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한국 여성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기성복 정장 중 재킷, 스커트, 바지의 치수선택 실태를 조사하고, 각 치수를 착용하는 여성의 중요 부위의 신체 치수를 조사하여 연령이 치수 선택에 미치는 효과 및 상하의 선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소비자의 치수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령별로 세분화된 기성복 시장이 효율적인 치수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각 연령대별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기성복 정장(재킷, 스커트, 바지) 치수를 조사한다.
- 연구문제 2.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의 일치도를 조사한다.
- 연구문제 2-1. 연령대별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의 일치도를 조사한다.
- 연구문제 2-2. 비만도별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의 일치도를 조사한다.
- 연구문제 3. 각 연령대별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기성복 정장(재킷, 스커트, 바지) 치수와 신체치수와의 관계를 살핀다.
- 연구문제 3-1. 재킷의 치수별 착용자의 신체 치수를 비교한다.

연구문제 3-2. 재킷 치수별 *연령대별 신체치수를 비교한다.

연구문제 3-3. 연령대의 치수별 *착용자별 신체치수를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성복 착용 치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세 부터 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2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비 조사를 걸쳐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과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25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699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전업주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측정 도구

설문지는 본인이 착용하는 기성복 정장(재킷, 스커트, 바지)의 치수, 본인의 신체 치수(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중), 연령,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성복 정장의 치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주관식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재킷은 95%, 스커트, 바지는

70%가 구호칭(44, 55, 66, 77...)을 사용하여 대답하였고, 그 외 재킷은 신호칭(85-92-155)으로 대답한 경우와 하의는 허리둘레 치수(26inch, 27inch, 혹은 65cm, 70cm)로 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의 결과는 오설영(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설영(2000)은 의류업계에서 의류 제조시 제품 라벨에 표시하는 호칭은 KS 규정에 따른 신체치수 조합에 의해 표시하고 있지만, 의류매장에서 판매원들이 의류치수를 표현할 때 구호칭을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통상적으로 구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KS 치수 규격이 소비자에게 자신의 신체에 맞는 의류를 선택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자는 예비조사 결과와 오설영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 설문 조사에서는 기성복 정장 치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호칭(44, 55, 66, 77, 88, 99)을 표기해 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본인의 신체 치수는 직접 적게 하였다.

비만도 분류는 신체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Rohrer 지수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Rohrer지수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있는 키와 몸무게의 신체계측치를 사용하여 비만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편리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성민정, 김희은, 2001). Rohrer지수의 판정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박우미(1993), 백희영, 남윤자, 정재은, 김주연(2000), 성민정, 김희은(2001), 주재은, 정찬진, 정명선(2001)이 제시한 판정 기준으로 수척, 정상, 비만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Rohrer 지수가 1.2미만은 수척, 1.2이상에서 1.5미만은 정상, 1.5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령	빈도(명)	비율(%)	직업	빈도(명)	비율(%)
20-29세	296	42.35	생산직	29	4.15
30-39세	150	21.46	전문직	105	15.02
40-49세	161	23.03	전업주부	185	26.47
50-59세	92	13.16	사무직	114	16.31
			판매직	92	13.16
			학생	114	16.31
			기타	60	8.58

3.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기초통계와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test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각 연령대의 의류 제품별 착용하는 치수

각 연령대별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재킷 치수는 <그림 1>과 같다.

응답자가 가장 많이 착용하는 재킷 치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55호(57.8%), 30대는 55호(38.7%), 66호(38.7%), 40대는 66호(46.6%), 50대는 77호(41.3%)였다. 특히 20대는 55호를 착용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외에도 20대는 66호(29.6%), 40대는 77호(29.2%), 50대는 66호(33.7%), 88호이상(21.7%)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재킷의 치수 분포를 연구한 오설영, 천종숙(2002)의 결과에서도 여성들이 착용하는 치수가 18~23세는 55호, 24~29세는 55호, 30~39세는 66호, 40~49세는 66호, 50~59세는 66호, 77호가 각 연령대별 가장 많이 착용하는 치수로 나타나 본 연구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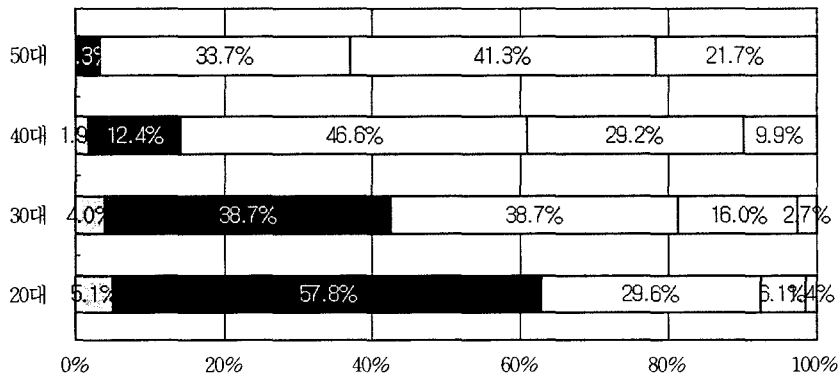
각 연령대별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스커트 치수는 <그림 2>와 같다.

20대는 55호(54.4%), 30대는 66호(39.3%), 40대는 66호(46.0%), 50대는 77호(45.7%)를 가장 많이 착용했다. 재킷과 마찬가지로 20대는 55호 착용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외에도 20대는 66호(30.6%), 30대는 55호(36.0%), 40대는 77호(31.7%), 50대는 66호(32.6%)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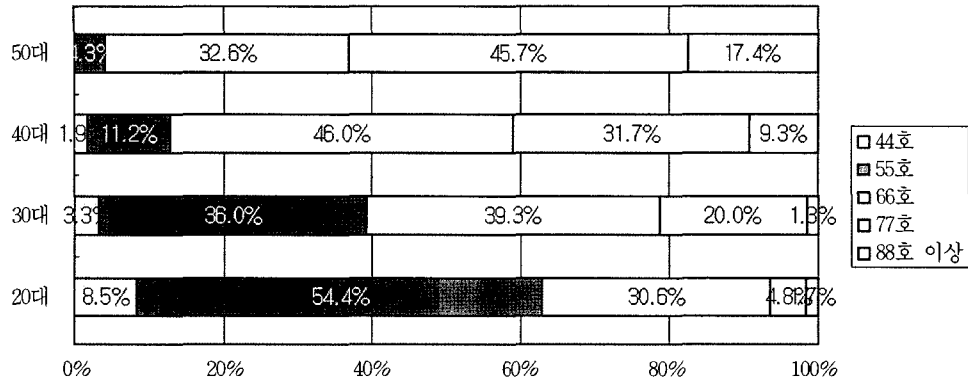
각 연령대별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바지의 치수는 <그림 3>과 같다.

20대는 55호(51.4%), 30대는 66호(45.3%), 40대는 66호(44.1%), 50대는 77호(51.1%)를 가장 많이 착용했다. 각 연령대에서 50% 이상의 착용율을 보인 치수는 20대의 55호와 50대의 77호였다. 특히 50대의 77호는 재킷과 스커트에 비해 착용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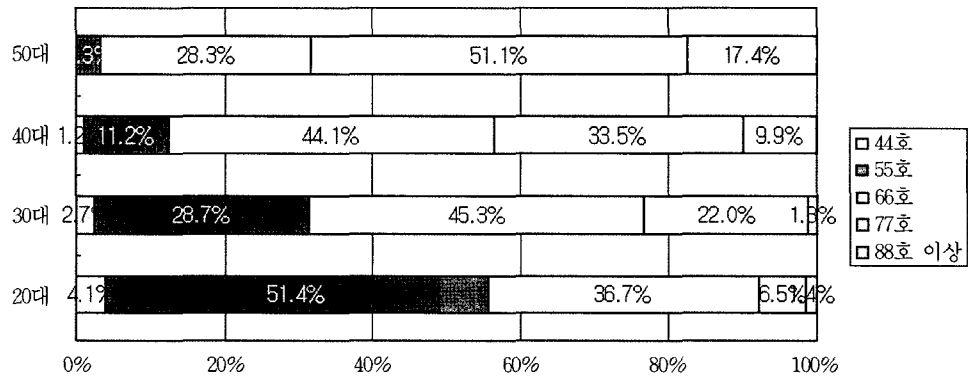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이템 종류에 관계없이 각 연령대별로 많이 착용하는 치수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즉 20대는 55호, 30대는 66호, 40대는 66호, 50대는 77호를 착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와 착용하는 각 아이템별 치수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표 3>, <표 4>.



<그림 1> 연령대별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재킷 치수



<그림 2> 연령대별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스커트 치수



<그림 3> 연령대별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바지 치수

연령대와 재킷 치수, 연령대와 스커트 치수, 연령대와 바지 치수간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와 각 아이템의 치수 간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류 업체에서는 의류 치수를 전개할 때 업체별 목표 시장의 연령대를 맞춰 치수의 생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 적임을 알 수 있다.

각 연령대별로 20% 이상의 착용 비율이 나타난 치수를 제안하면 20대는 55호, 66호, 30대는 55호, 66호, 77호, 40대는 66호, 77호, 50대는 66호, 77호, 88호였다.

2. 재킷 치수와 스커트·바지 치수 일치도

1) 연령대별 재킷과 스커트·바지 치수 일치도

연령대별 응답자가 착용하는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는지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7.3%이고,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0.9%,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1.8%였다.

20대는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5.5%이고,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0.2%, 큰

〈표 2〉 연령대와 착용하는 재킷 치수와의 교차분석

연령 치수	재킷	44호	55호	66호	77호	88호이상	Total	χ^2 value
20대		15	170	87	18	4	294	221.2***
	작은 것	10.1	105.9	105.9	53.6	18.6	294.0	
	같은 것	5.1	57.8	29.6	6.1	1.4	100.0	
	큰 것	62.5	67.7	34.7	14.2	9.1	42.2	
	모름	2.2	24.4	12.5	2.6	0.6	42.2	
30대		6	58	58	24	4	150	
	작은 것	5.2	54.0	54.0	27.3	9.5	150.0	
	같은 것	4.0	38.7	38.7	16.0	2.7	100.0	
	큰 것	25.0	23.1	23.1	18.9	9.1	21.5	
	모름	0.9	8.3	8.3	3.4	0.6	21.5	
40대		3	20	75	47	16	161	
	작은 것	5.5	58.0	58.0	29.3	10.2	161.0	
	같은 것	1.9	12.4	46.6	29.2	9.9	100.0	
	큰 것	12.5	8.0	29.9	37.0	36.4	23.1	
	모름	0.4	2.9	10.8	6.7	2.3	23.1	
50대		0	3	31	38	20	92	
	작은 것	3.2	33.1	33.1	16.8	5.8	92.0	
	같은 것	0.0	3.3	33.7	41.3	21.7	100.0	
	큰 것	0.0	1.2	12.4	29.9	45.5	13.2	
	모름	0.0	0.4	4.4	5.5	2.9	13.2	
Total		24	251	251	127	44	697	
	작은 것	24.0	251.0	251.0	127.0	44.0	697.0	
	같은 것	3.4	36.0	36.0	18.2	6.3	100.0	
	큰 것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모름	3.4	36.0	36.0	18.2	6.3	100.0	

한 셀 안의 숫자는 순서대로 실제출현빈도(명), 기대빈도(명), 연령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치수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 : p<0.001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4.3%였다. 30대는 재킷 치수와 스커트의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7.3%이고,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4.0%,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8.7%였다. 40대는 재킷 치수와 스커트의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8.9%이고,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1.8%,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9.3%였다. 50대는 재킷 치수와 스커트의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80.4%이고,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6.5%,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3.1%였다.

재킷의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

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였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대였다.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큰 것을 착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령과 더불어 하반신이 상반신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념에 어긋나는 결과이다.

또한 橋詰靜子の 5인이 20~50대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999)에서는 재킷과 스커트의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이 71.2%로 우리나라의 결과보다 낮았다. 또한 20, 30대는 스커트 치수에 비해 큰 재킷 치수를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작은 치수를 착용하는 사람보다 많았고, 반대로 40,

<표 3> 연령대와 착용하는 스커트 치수와의 교차분석

연령 치수 \ 스커트	44호	55호	66호	77호	88호이상	Total	χ^2 value
20대	25	160	90	14	5	294	226.5***
	13.9	99.5	106.7	57.8	16.0	294.0	
	8.5	54.4	30.6	4.8	1.7	100.0	
	75.8	67.8	35.6	10.2	13.2	42.2	
	3.6	23.0	12.9	2.0	0.7	42.2	
30대	5	54	59	30	2	150	
	7.1	50.8	54.4	29.5	8.2	150.0	
	3.3	36.0	39.3	20.0	1.3	100.0	
	15.2	22.9	23.3	21.9	5.3	21.5	
	0.7	7.7	8.5	4.3	0.3	21.5	
40대	3	18	74	51	15	161	
	7.6	54.5	58.4	31.6	8.8	161.0	
	1.9	11.2	46.0	31.7	9.3	100.0	
	9.1	7.6	29.2	37.2	39.5	23.1	
	0.4	2.6	10.6	7.3	2.2	23.1	
50대	0	4	30	42	16	92	
	4.4	31.2	33.4	18.1	5.0	92.0	
	0.0	4.3	32.6	45.7	17.4	100.0	
	0.0	1.7	11.9	30.7	42.1	13.2	
	0.0	0.6	4.3	6.0	2.3	13.2	
Total	33	236	253	137	38	697	
	33.0	236.0	253.0	137.0	38.0	697.0	
	4.7	33.9	36.3	19.7	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7	33.9	36.3	19.7	5.5	100.0	

한 셀 안의 숫자는 순서대로 실제출현빈도(명), 기대빈도(명), 연령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치수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 : p<0.001

50대는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복을 구입할 때 상하의 치수를 세트의 개념으로 같은 호칭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역으로 상하의 치수가 각각 우리나라 사람에게 잘 맞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연령대별 응답자가 착용하는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의 일치와 불일치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8.3%이고,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5.4%,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6.3%였다.

20대는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8.6%이고,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5.3%,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6.1%였다. 30대는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2.0%이고,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22.0%,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6.0%였다. 40대는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82.0%이고,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2.4%,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5.6%였다. 50대는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81.5%이고,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표 4〉 연령대와 착용하는 바지 치수와의 교차분석

연령 치수 \ 바지	44호	55호	66호	77호	88호이상	Total	χ^2 value
20대	12	151	108	19	4	294	216.2***
	7.6	90.7	115.2	64.5	16.0	294.0	
	4.1	51.4	36.7	6.5	1.4	100.0	
	66.7	70.2	39.6	12.4	10.5	42.2	
	1.7	21.7	15.5	2.7	0.6	42.2	
30대	4	43	68	33	2	150	
	3.9	46.3	58.8	32.9	8.2	150.0	
	2.7	28.7	45.3	22.0	1.3	100.0	
	22.2	20.0	24.9	21.6	5.3	21.5	
	0.6	6.2	9.8	4.7	0.3	21.5	
40대	2	18	71	54	16	161	
	4.2	49.7	63.1	35.3	8.8	161.0	
	1.2	11.2	44.1	33.5	9.9	100.0	
	11.1	8.4	26.0	35.3	42.1	23.1	
	0.3	2.6	10.2	7.7	2.3	23.1	
50대	0	3	26	47	16	92	
	2.4	28.4	36.0	20.2	5.0	92.0	
	0.0	3.3	28.3	51.1	17.4	100.0	
	0.0	1.4	9.5	30.7	42.1	13.2	
	0.0	0.4	3.7	6.7	2.3	13.2	
Total	18	215	273	153	38	697	
	18.0	215.0	273.0	153.0	38.0	697.0	
	2.6	30.8	39.2	22.0	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6	30.8	39.2	22.0	5.5	100.0	

한 셀 안의 숫자는 순서대로 실제출현빈도(명), 기대빈도(명), 연령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치수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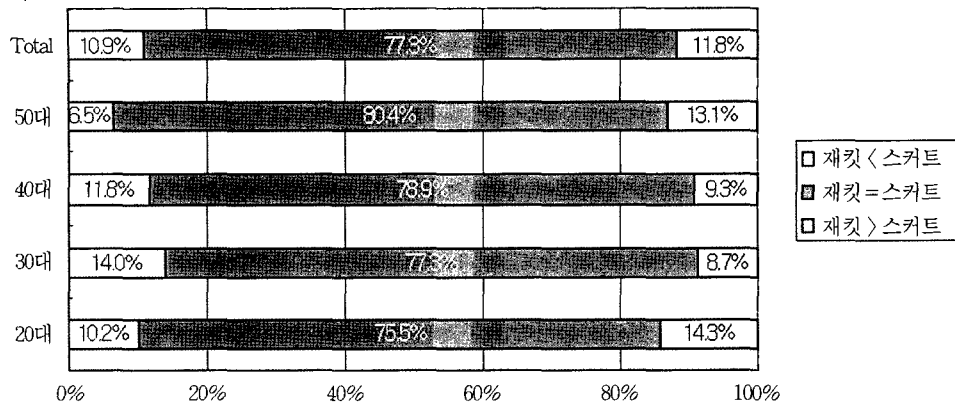
사람은 9.8%,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8.7%였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는 재킷 치수와 바지의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스커트의 경우와는 달리 30대가 재킷과 바지의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킷의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아(22.0%), 30대를 대상으로 의복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이고, 가장 비율이 적은 연령대는 30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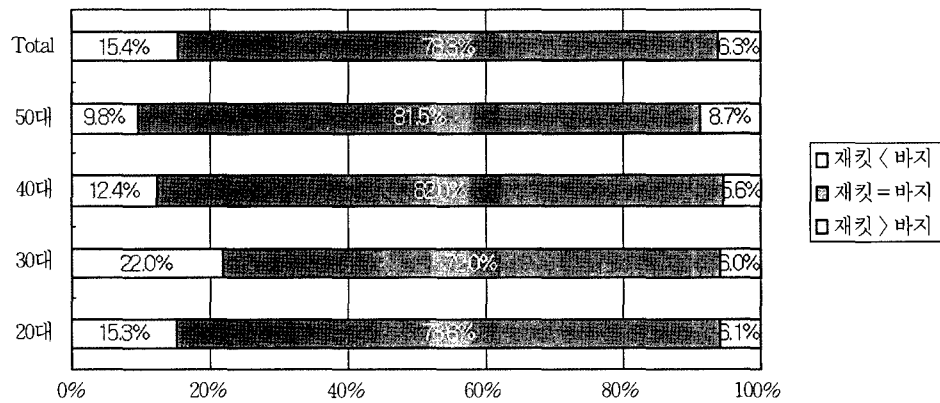
연령대별 재킷·스커트 치수 일치도와 재킷·바

지 치수 일치도를 비교해 보면 일치율이 3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 모두 재킷·바지 치수 일치율이 높았다.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와 반대로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하의끼리도 치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 같은 하의의 경우에도 다른 맞춤새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와 재킷과 스커트 치수 일치도, 재킷과 바지 치수 일치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그림 4> 연령대별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 일치도



<그림 5> 연령대별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 일치도

검증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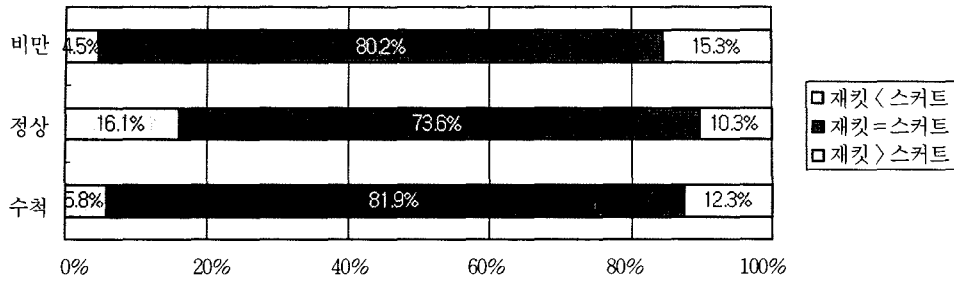
2) 비만도별 재킷과 스커트·바지 치수 일치도

비만도별 응답자가 착용하는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는지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수척형은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81.9%이고,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5.8%,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2.3%였다. 정상형은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3.6%이고,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

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6.1%,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0.3%였다. 비만형은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80.2%이고,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4.5%,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5.3%였다.

비만도에 따른 체형과 착용하는 재킷과 스커트 치수 일치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비만도에 따른 체형과 착용하는 재킷과 스커트 치수 일치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척형은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았고, 정상형은 재



〈그림 6〉 비만도별 재킷 치수와 스커트 치수 일치도

〈표 5〉 비만도와 착용하는 재킷·스커트 치수의 일치도의 교차분석

비만도 \ 일치도	재킷 < 스커트	재킷 = 스커트	재킷 > 스커트	Total	χ^2 value
수척	13	185	28	226	
	24.6	174.8	26.6	226.0	
	5.8	81.9	12.4	100.0	
	17.1	34.3	34.1	32.4	
	1.9	26.5	4.0	32.4	
정상	58	265	37	360	
	39.3	278.4	42.4	360.0	
	16.1	73.6	10.3	100.0	
	76.3	49.2	45.1	51.6	
	8.3	38.0	5.3	51.6	
비만	5	89	17	111	
	12.1	85.8	13.1	111.0	
	4.5	80.2	15.3	100.0	
	6.6	16.5	20.7	15.9	
	0.7	12.8	2.4	15.9	
Total	76	539	82	697	
	76.0	539.0	82.0	697.0	
	10.9	77.3	1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9	77.3	1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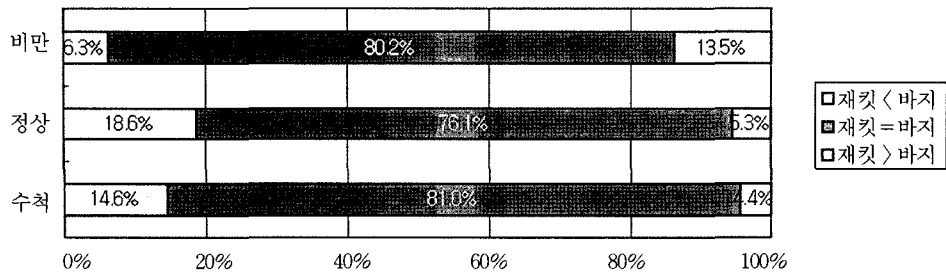
한 셀 안의 숫자는 순서대로 실제출현빈도(명), 기대빈도(명), 비만도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일치도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 : p<0.001

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비만형은 재킷치수와 스커트 치수가 일치하거나 재킷 치수가 스커트 치수보다 큰 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비만도별 응답자가 착용하는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의 일치와 불일치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수척형은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것

을 착용하는 사람은 81.0%이고, 재킷의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4.6%,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4.4%였다. 정상형은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76.1%이고,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8.6%,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5.3%였다. 비만형은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



〈그림 7〉 비만도별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 일치도

〈표 6〉 비만도와 착용하는 재킷·바지 치수의 일치도의 교차분석

비만도 \ 일치도	재킷 < 바지	재킷 = 바지	재킷 > 바지	Total	χ^2 value
수척	33	183	10	226	
	34.7	177.0	14.3	226.0	
	14.6	81.0	4.4	100.0	
	30.8	33.5	22.7	32.4	
	4.7	26.3	1.4	32.4	
정상	67	274	19	360	
	55.3	282.0	22.7	360.0	
	18.6	76.1	5.3	100.0	
	62.6	50.2	43.2	51.6	
	9.6	39.3	2.7	51.6	
비만	7	89	15	111	
	17.0	87.0	7.0	111.0	
	6.3	80.2	13.5	100.0	
	6.5	16.3	34.1	15.9	
	1.0	12.8	2.2	15.9	
Total	107	546	44	697	
	107.0	546.0	44.0	697.0	
	15.4	78.3	6.3	100.0	
	100.0	100.0	100.0	100.0	
	15.4	78.3	6.3	100.0	

한 셀 안의 숫자는 순서대로 실제출현빈도(명), 기대빈도(명), 비만도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일치도별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 : p<0.001

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80.2%이고,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6.3%, 큰 것을 착용하는 사람은 13.5%였다.

비만도에 따른 체형과 착용하는 재킷과 바지 치수 일치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비만도에 따른 체형과 착용

하는 재킷과 바지 치수 일치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척형은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았고, 정상형은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에 비해 작은 것을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비만형은 재킷 치수가 바지 치수보다 큰 치수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3. 재킷¹⁾의 치수별 착용자의 신체 치수 비교

1) 재킷의 치수별 착용자의 신체 치수 비교

〈표 7〉은 재킷 치수별 신체 치수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 결과이다. 신체 치수 5항목 모두 재킷 치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키는 55호, 66호를 착용하는 여성이 44호를 착용하는 여성에 비해 컸다. 가슴둘레는 88호 이상을 착용하는 여성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77호, 66호 순이었고, 44호와 55호를 착용한 여성은 가장 작았다. 허리둘레는 재킷 치수가 커질수록 각각의 치수를 착용하는 여성의 허리둘레는 컸다. 엉덩이둘레는 88호 이상을 착용하는 여성이 가장 컸고, 44호를 착용하는 여성이 가장 작았다. 체중은 허리둘레와 마찬가지로 재킷 치수를 큰 것을 착용할수록 체중이 무거웠다. 즉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중 항목은 재킷의 치수가 커질수록 이 치수를 착용하는 여성의 신체 치수가 커졌다. 그러나 키의 경우는 재킷의 치수와 무관하게 55호와 66호를 착용하는 여성의 키가 가장 컸다. 그러므로 그레이딩을 할 때 둘레 항목은 치수가 커질수록 증가해야 하지만 길이 항목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증가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일 재킷 치수 착용자의 연령대별 신체 치수 비교

〈표 8〉은 동일 치수의 재킷을 착용하는 여성들 간에 연령대별 신체 치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한 결과이

다. 44호와 88호 이상을 착용하는 응답자는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재킷 55호 치수를 착용하는 여성은 연령대별 키, 가슴둘레, 체중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키는 20, 30대에 비해 40대 이상의 집단이 작았다. 허리둘레는 20대가 30대에 비해 작았고, 체중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무거웠다. 이에 비해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연령대별 차이가 없었다.

재킷 66호 치수를 착용하는 여성은 연령대별 키, 허리둘레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키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작았고, 허리둘레는 40대 이상 집단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체중은 연령대별 신체 치수의 차이가 없었다. 즉, 재킷 66호를 착용하는 여성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키가 크고, 허리둘레는 작았고, 30대는 40대에 비해 키가 컸다.

재킷 77호 치수를 착용하는 여성은 연령대별 키, 허리둘레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키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작았고, 허리둘레는 40대 이상 집단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체중은 연령대별 신체치수는 차이가 없었다. 즉 재킷 77호를 착용하는 여성은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키가 크고, 허리둘레는 작았고, 30대는 40대에 비해 키가 컸다.

1) 스커트와 바지도 각 치수별 착용자의 신체 치수를 비교한 결과 재킷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인 재킷의 치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만을 첨부한다.

〈표 7〉 재킷 치수별 신체 치수의 차이

신체치수 \ 재킷호칭	44호	55호	66호	77호	88호 이상	F-value
키	158.3 b	161.4 a	160.6 a	159.8 ab	159.5 ab	4.26**
가슴둘레	79.0 d	81.4 d	85.2 c	89.5 b	99.3 a	64.45***
허리둘레	62.6 e	65.4 d	70.0 c	75.0 b	81.6 a	252.31***
엉덩이둘레	83.6 d	87.2 cd	90.8 bc	94.4 b	102.5 a	21.66***
체중	43.5 e	49.2 d	54.1 c	60.1 b	68.3 a	407.00***

** : $p \leq 0.01$, *** : $p \leq 0.001$, a > b > c > d > e : Duncan-test, $p \leq 0.05$ 수준

〈표 8〉 동일 치수를 착용하는 여성의 연령대별 신체 치수의 차이

신체치수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F-value
재킷 55호	키		161.9 a	161.6 a	157.5 b	8.36***
	가슴둘레		81.1	82.3	81.9	0.93
	허리둘레		64.9 b	66.6 a	66.1 ab	5.94**
	엉덩이둘레		87.5	87.2	84.8	0.64
	체중		48.9 b	50.3 a	48.8 b	4.04*
재킷 66호	키		163.8 a	161.8 b	157.3 c	55.60***
	가슴둘레		84.9	86.5	84.7	1.55
	허리둘레		69.0 b	69.4 b	71.4 a	12.42***
	엉덩이둘레		89.6	92.9	91.5	3.15
	체중		54.4	54.4	53.7	1.62
재킷 77호	키		164.5 a	161.3 b	158.3 c	15.58***
	가슴둘레		88.3	90.1	89.7	0.30
	허리둘레		72.5 b	73.5 b	75.7 a	6.47**
	엉덩이둘레		92.0	94.3	95.1	0.70
	체중		60.4	60.8	59.8	0.62

* : p≤0.05, ** : p≤0.01, *** : p≤0.001, a > b > c : Duncan-test, p≤0.05 수준

이상의 결과를 보면 동일 치수를 착용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신체 치수 중 키와 허리둘레는 달랐으나,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체중은 같았다. 키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작아졌고, 허리둘레는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커졌다.

3) 동일 연령대 착용자의 재킷 치수별 신체 치수 비교

〈표 9〉는 동일 연령대의 여성이 착용하는 재킷 치수별 신체 치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한 결과이다.

20대 여성은 착용하는 재킷 치수에 따라 신체 치수 5항목 모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키는 77호를 착용하는 여성이 55호를 착용하는 여성보다 더 컸다. 가슴둘레, 허리둘레, 체중은 재킷의 치수를 큰 것을 착용하는 여성일수록 신체치수가 컸다. 엉덩이둘레는 66, 77호를 착용하는 여성이 55호를 착용하는 여성보다 컸다.

30대 여성은 착용하는 재킷 치수에 따라 키를 제

외한 4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가슴둘레, 허리둘레, 체중은 재킷의 치수를 큰 것을 착용하는 여성일수록 신체치수가 컸다. 엉덩이둘레는 66, 77호를 착용하는 여성이 55호를 착용하는 여성보다 컸다.

40대 이상 여성은 착용하는 재킷 치수에 따라 키를 제외한 4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가슴둘레는 77호를 착용하는 여성이 55, 66호를 착용하는 여성에 비해 컸다. 허리둘레, 체중은 재킷의 치수가 클수록 착용하는 여성이 무거웠고, 엉덩이둘레는 66, 77호를 착용하는 여성이 55호를 착용하는 여성보다 컸다.

모든 연령대에서 재킷의 치수가 커질수록 착용자의 신체 치수 중 둘레항목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길이항목인 키는 30대, 4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재킷의 치수에 따른 착용자의 치수 변화가 없었지만, 20대는 재킷의 치수가 증가할수록 착용자의 키가 커졌다. 즉 20대는 제품 치수가 커질수록 신체치수 중 길이, 둘레항목 모두가 증가하지만, 30대 이상은 제품 치수가 커질수

〈표 9〉 동일 연령대 여성의 재킷 치수별 신체 치수의 차이

신체치수	재킷호칭	55호	66호	77호	F-value
20대	키	161.9 b	163.8 ab	164.5 a	5.45**
	가슴둘레	81.1 c	84.9 b	88.3 a	24.10***
	허리둘레	64.9 c	69.0 b	72.5 a	64.54***
	엉덩이둘레	87.5 b	89.6 a	92.0 a	2.93*
	체중	48.9 c	54.4 b	60.4 a	134.47***
30대	키	161.6	161.8	161.3	0.14
	가슴둘레	82.3 c	86.5 b	90.1 a	11.72***
	허리둘레	66.6 c	69.4 b	73.5 a	24.44***
	엉덩이둘레	87.2 b	92.9 a	94.3 a	9.22**
	체중	50.3 c	54.4 b	60.8 a	73.65***
40대 이상	키	158.1	158.1	158.8	0.69
	가슴둘레	83.8 b	85.0 b	88.8 a	4.59*
	허리둘레	66.1 c	71.1 b	75.5 a	56.42***
	엉덩이둘레	84.8 b	92.0 a	93.5 a	5.11*
	체중	49.1 c	54.0 b	60.2 a	109.32***

* : $p \leq 0.05$, ** : $p \leq 0.01$, *** : $p \leq 0.001$, a > b > c : Duncan-test, $p \leq 0.05$ 수준

록 착용자의 길이항목은 변하지 않고, 둘레항목만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 그레이딩시 20대를 위한 의복은 제품 치수를 증가시킬 때 길이항목과 둘레항목 모두 증가하여야 하지만 30대 이상을 위한 의복인 경우에는 치수에 따라서는 길이항목은 그대로 두고 둘레항목만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혜선, 이경미(1995)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성복업체에서는 큰 치수를 만들 때 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를 일률적으로 증가시켜 가장 큰 치수의 경우 커버율이 0~0.1%로 낮게 나타나 불필요한 치수를 만들고 있다. 이는 중년여성의 재킷 패턴을 설계할 때 길이항목의 값을 20대 여성의 길이항목과 달리 선정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그레이딩 편차 설정시 길이부분의 증가율은 연령에 따라 최소화 시켜야 한다.

즉 치수를 설정할 때는 단순히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의 일률적인 증가에 의한 치수 조합이 아닌 각 업체의 표적 시장에 맞춰 체형에 대한 연구를 토대

로 그레이딩 편차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기성복 정장 중 재킷, 스커트, 바지의 치수 선택의 실태를 조사하고, 각 치수 선택별 착용하는 여성의 신체 치수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연령대에 따라 성인 여성이 착용하는 기성복의 치수는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55호, 30, 40대는 66호, 50대는 77호의 착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각 연령대별로 10% 이상의 선택율을 보인 치수는 20대는 55호, 66호, 30대는 55호, 66호, 77호, 40대는 66호, 77호, 50대는 66호, 77호, 88호였다.

2. 재킷 치수와 스커트치수, 재킷 치수와 바지 치수가 일치하는 것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77.3%와 78.3%로 높았다. 비만도에 따른 체형과 착용하는 재킷·스커트, 재킷·바지 치수 일치도 사이

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재킷의 치수별 착용자의 신체 치수는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재킷의 치수가 커질수록 둘레항목은 커졌지만 키는 재킷의 치수와는 무관하게 55호와 66호 착용자가 가장 컸다. 동일 치수의 재킷 착용자의 연령대별 신체 치수 차이는 키와 허리둘레항목에서 나타났는데, 키는 연령이 높을수록 작았고, 허리둘레는 연령이 높을수록 컸다. 또한 동일 연령대의 재킷 치수별 착용자의 신체 치수의 차이는 20대는 키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고, 30대 이상은 키를 제외한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20대는 제품 치수가 커질수록 길이, 둘레항목 모두 증가하였지만, 30대 이상은 제품 치수가 커질수록 착용자의 길이항목은 변하지 않고, 둘레 항목만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치수는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레이딩시 연령대별 각 체형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의 일률적인 증가에 의한 치수 조합으로는 소비자들의 실제 체형에 적절한 치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업체에서는 의류 제품의 치수를 설정할 때에는 표적 시장에 대한 체형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의 증감에 의한 편차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성복 치수 커버율을 높일 수 있고, 재고율과 생산단가를 낮춰 타사와의 경쟁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수, 그레이딩 편차를 조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치수 실태 차이를 밝히고, 또한 연령별 체형의 특징을 연구하여 각 연령대별 적절한 그레이딩 편차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착용하는 기성복 정장에 대한 소재, 패턴, 디자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본인의 신체 치수를 연구자의 계측 없이 주관적으로 기입하게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 조사가 서울과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에 치수 표기법을 구호칭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반화

에는 주의해야 한다.

■ 참고문헌

김양원(1999). 여성용 기성복에 대한 적합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11-217.

김양원(2001).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와 불만족 실태. 한국생활과학회지, 10(1), 96-100.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백희영, 남윤자, 정재은, 김주연(2000). 신체에 대한 인식과 계측 자료에 의한 여대생들의 체형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59-70.

성민정, 김희운(2001). 비만 판정 지수에 의한 여대생의 체형 분류 및 체형 인지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227-234.

오설영(2000).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설영, 천종숙(2002). 소비자의 여성정장 브랜드 선호도와 기성복 치수의 맞춤새. 패션비즈니스학회지, 6(1), 128-136.

이진희(2001). 성인 여성의 기성복 구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4), 357-363.

주재은, 정찬진, 정명선(2001). 중년여성의 신체 지각과 이상적 연령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만족도. 복식문화연구, 9(5), 723-733.

정주희(1996). 숙녀복 치수체계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선, 이경미(1995). 중년 여성 기성복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87-201.

橋詰靜子, 長田美智子, 雲田直子, 長塚こずえ, 田中百子, 永井房子(1999). 衣服サイズの適合性の検討.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40(4), 246-254.

(2002년 12월 27일 접수, 2003년 7월 18일 채택)